



산상설교, 카를하이리히 볼로호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스바 2,3; 3,12-13

화답송



행복하여라, 람 들!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다.
 마음이 가난한 사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1코린1,26-3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 마태5,1-12L

성가 입당성가 37
 예물준비 434
 성체성가 170
 파견성가 441

미사 봉헌

연미사

김영호 요셉
 이정진 안토니오
 김학순

봉헌

김미혜 에레나
 한동훈
 박혜화

생미사

Angelo Dimaggio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유데이빗, 유데니엘, 유케이디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녜스
 민유미 카타리나
 이태영, 백승민 요한보스코
 민정신 아폴로니아
 김지원 루시아
 조소연 마르티나
 이규완 안토니오 가정
 박크리샤 올리바 생일
 김학범 알폰소신부, 가롤로신부, 효주수녀
 본당에서 믿음속에 고인되신 강주옥 소피아
 본당에서 믿음속에 고인되신 원용한 요아킴
 본당에서 믿음속에 고인되신 김종목 리차드
 본당에서 믿음속에 고인되신 강세량 엘리사벳
 본당에서 믿음속에 고인되신 조 화 장안나
 본당에서 믿음속에 고인되신 강건대 마리아
 본당에서 믿음속에 고인되신 백남성 요셉프란치스코
 본당에서 믿음속에 고인되신 김화자 소화테레사

봉헌

크리샤 박
 정다경 마리아
 유그레이스
 가족
 가족
 이정현 헬레나
 가족
 익명
 익명
 조남록미카엘, 데레사
 김보현 엘리사벳
 박알버트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월 29일	이울리아나	민필립보	장크리스티나	장크리스티나	김비비안나	없음	
2월 05일	김대건안드레아	민필립보	이울리안나	이울리안나	민안젤라	없음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13,2

▶손님 신부님 미사봉헌

김 가롤로 신부님께서 한국에 비자갱신 위해 다녀 오시기에 1/29(일), 2/5(일), 2/12(일) 손님 신부님께서 미사봉헌 하십니다.

▶제 13차 성령안에 성장세미나

일 시: 2/17(금)3pm~2/19(주일)5pm, 2박3일

장소: 뉴튼 분도수도원, 참가비: 340불

지도단: 미동북부 봉사회 지도신부 및 봉사팀

대상: 성령안에 삶 세미나 받은후, 영적성장과 공동체 봉사 헌신의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분. 신청마감: 2/5(주일)

신청문의: 맨하탄 성령기도회 347-665-6696

▶2023년 울뜨레아 동북부 지구 신년 교례회

일시: 1/29(주일) 4:00pm

장소: 베이사이드 성당

참가비: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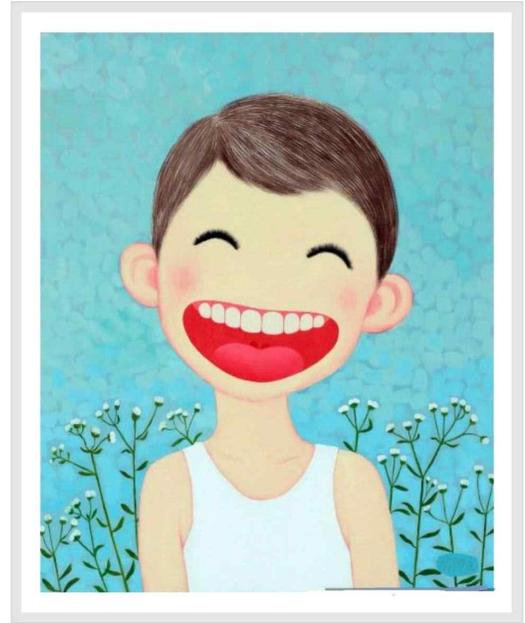
신청: 울뜨레아 간사

▶2023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유아세례 드립니다. *신청: 사무실



웃음꽃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며
짧은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서로
행복과 사랑이 넘쳐주시기를
....

▶미사전 일찍 도착 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으시고 해설자와 함께 성경봉독하며, 주님을 뵙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태5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진자세실리아 이병국요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단체 모임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Rm(2F)
우리즐거움의원천 Pr.(청년)	매주 주일 11:00	2D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	교육관 3B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3A
청년회	첫째 주일 12:30	교육관 2A
청년찬양팀(아훼이레)	1,2째 토 15:00	3B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7:30	Rm(2F)
신명풍물패	2~5 주일 14:00	교육관 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K.C. Rm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당신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수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그대'라는 존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대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그대'라는 대상의 자리에 우리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로서 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 주십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있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건강 등에서 행복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물질적 측면이나 건강이라는 차원의 행복은 더 큰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거쳐가는 지점일 뿐이며, 참된 행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대상으로서 목적지이자 종착점이라는 마침의 상징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게다가 그 구체적인 주체가 하느님이시기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은 더욱 절대적이며 완전한 것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복에 힘입어 다른 누구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이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의 표현이 하나의 행복 선언이 되어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우리가 행복을 주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행복 안에 머무르고 행복을 기꺼이 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윤영현 가브리엘 신부